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

노 은 여 권 정 혜

고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인 부부관계 적응도와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기혼남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고 아울러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인 112명(남 67명, 여 45명)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유희적 활동(예:오락, 애정표현, 성관계, 여가시간의 취미나 활동)에 대한 의견의 일치와 자아존중감 수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의견일치가 단일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수준과 상호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의 절대 수준보다는 변동성이 2주후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을 일으키는데 있어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부부치료에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갖는다.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on)은 다른 정신과적 장애보다도 유병율이 높아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생동안 10-25%의 여성들과 5-12%의 남성들이 우울증을 앓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IV).

우울증은 특히 여성 집단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는데, 대략 남성들의 2배에 해당하며, 남녀 모두 25세에서 44세 사이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성인 남녀가 그들의 원가족을 떠

나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내는 기간이므로 이 때 우울증의 발병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마찰이 생겨나고,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될 뿐 아니라, 가정이 와해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관계와 우울증의 밀접한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밝혀져 왔으며(Beach, Jouriles, & O'Leary, 1985; O'Leary, Christian, & Mendell, 1994; Rounsaville, Weissman, Prusoff, & Herceg-Baron, 1979; Weissman, 1987),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대한 치료효과도 나쁘고 재발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erikangas, 1984).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Beach와 O'Leary (1986)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부부관계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결혼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특히 더 우울에 취약해지는 집단을 규명해 내거나, 결혼 생활과 우울을 중개(moderate)해주는 변인을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결혼생활과 우울을 중개해주는 중요한 인지 변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영국의 Brown, Bifulco 그리고 Andrews(1990)는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사회 여성들의 우울증을 1년에 걸쳐 연구하면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자아존중감이 여성들의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당시 가까운 사람(예; 남편, 친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많은 경우 우울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해 주었다.

최근에는 자아존중감의 절대수준 보다 자아존중감의 변동성(lability)이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arnett & Gotlib, 1988; Butler, Hokanson, & Flynn, 1994; Kernis, Granemann & Mathis, 1991; Roberts & Monroe, 1992).

이전의 연구들이 대부분 한두번에 걸쳐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여 그것을 연구의 자료로 삼고, 매일매일 자아존중감 수준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단순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자아존중감의 변화정도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란, 매일 매일의 어려운 일이나 기분 좋은 일에 자아존중감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사소한 스트레스 사건만으로도 우울 증상들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Butler et al., 1994). Kernis 등(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불안정한 사람들이 가장 우울에 취약하고 오히려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들에 비해 덜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사건들을 외부 귀인하고,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과는 달리, 자아존중감이 높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외부사건들에 더 과잉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oberts 와 Monroe(199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3주전에서부터 시험을 본 후 성적이나 오기까지 1주일에 걸쳐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은 1차 시기 우울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기의 우울을 잘 예언해 주었다. Butler, Hokanson과 Flynn(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역시 현재 우울하거나 혹은 이전에 우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우울한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불안정성이 생활 사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할 때 미래의 우울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역동 이론, 인지 이론과 같은 주요 우울 이론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우울을 예측해주는 좋은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ado(1928)는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과도한 정도로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사

량받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 이론에서는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가 우울증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가정한다. 예컨대, 실수를 하면 남들이 나를 업신 여기고,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역기능적 신념을 지녔을 경우 매일 매일의 사소한 스트레스만으로도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아존중감이 쉽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역기능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Butler, Hokanson, & Flynn, 1994).

부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흥미로운 변인은 바로 성별(gender)이다. 남성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자아(self)를 정의 내리고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비중을 두고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기반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타인들과의 관계,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attachment)을 중시하므로 남들과 더 잘 어울리고 남들과 조화롭게 지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타인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존재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다(Josephs, Markus, & Tafarodi, 1992). 이는 남성과 여성이 어려서부터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 패턴도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자아존중감 수준(level)은 다르지 않더라도, 자아존중감의 기반이 되는 요인들은 다를 수 있다.

Culp와 Beach(1993)는 결혼 생활과 우울의 관련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해 내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증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¹⁾(mediating

variable)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해주지 못했지만, 남성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중개변인²⁾(moderating variable)으로 기능하여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우울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경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누리면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여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되는 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아존중감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과 다르다. 결혼 생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결정되는 여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낮으나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이 우울에 빠질 가능성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 방법이 횡단적 연구였고, 인터뷰가 아닌 자기 보고식 검사를 사용한 연구였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염두에 두었다는 데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Ro와 Kwon(in this volume)의 연구에서는 임신 6개월 미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관계의 어떤 측면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부간의 의견일치가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냐의 측면을 고려할 때는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 기능하지만,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라는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중개변인으로 기능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남성들과의 차이점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Ro와 Kwon(in this volume)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

1) 독립변수 B가 종속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 않고, 독립변수 A를 통해서만 효과를 미칠 때, A를 B와 Y를 매개해주는 매개변수(mediator)라 한다.

2) 독립변수 B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효과의 양이나 질이 독립변수 A의 수준(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때, A를 중개변수(moderator)라 한다. 매개변수와 중개변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Ro & Kwon(in this volume)에 나와있다.

구결과를 임신부가 아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하며, 둘째,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자아존중감의 절대수준보다도 우울감을 더 잘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설명해주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역기능적 태도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남녀의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112명(남 67명, 여 45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 34.25세(표준편차 8.53)와 여자 38.61세(표준편차 11.14)였으며, 평균 결혼 연한은 남녀 각각 6.31년(표준편차 7.75), 13.27년(표준편차 11.14)이었다. 또한 남성들의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요인분석하기 위하여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한 남성 회사원 97명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2.08세(표준편차 3.12)로서 결혼 연한은 평균 4.02년(표준편차 2.99)이었다.

평가 도구

Beck 우울 척도 피험자들의 우울 정도는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1967)의 우리말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하였으나, 1번 보기에서 4번 보기로 진행할수록 증상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전달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문을 참조하여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BDI는 총 21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증상들이 전혀 없는 보기(0점)에서부터 매우 심한 보기(3점)까지 사지선다형

으로 되어 있다. BDI는 원래 우울증의 진단용으로 고안된 것이나 정상인의 우울 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DI의 신뢰도 계수는 .86(일차 시기의 BDI)과 .87(이차 시기의 BDI)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 10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피험자들의 자아존중감의 대체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의 첫날에는 원문과 동일한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변화 정도를 이들에 한번 꼴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10점 척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즉, 피험자들로 하여금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10점) 사이에 표시를 하게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고,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섯 번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도 .86부터 .91의 범위 내에 있었다.

부부관계 적응 척도 피험자들의 결혼 생활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YAS)의 우리말 번역본인 '부부관계 적응 척도'(이민식 · 김종술, 1995)를 사용하였다. DYAS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간의 의견일치, 관계에 대한 만족, 응집력, 애정표현의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Spanier, 1976). 이민식과 김종술(1995)의 한국판 DYAS의 표준화 예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요인 구조는 약간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서 Spanier의 .96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일차 시기에서는 .93을, 이차 시기에서는 .95를 얻었다.

역기능적 태도 척도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의 하나인 개인의 역기능적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Robins & Block,

1989). 본 연구에서는 DAS A형의 한국말 번역판 (Kwon, 1992)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7점 척도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태도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DAS의 신뢰도 계수는 .79에서 .93으로 내적일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2-3개월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79에서 .84사이에 있어 시간적으로도 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Dobson & Breiter, 1983). 본 연구에 사용된 DAS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총 여섯 번에 걸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와 두명의 연구 보조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피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거나, 가족내 혹은 직장 내에서 기혼자들을 자주 접하고 설문지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음을 가까이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여서 이루어졌다. 설문지가 완성 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2.7일이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설문지	BDI척도(BDI1), DYAS척도(DYAS1), SE척도(SE1)
두 번째 설문지	SE 척도(SE2)
세 번째 설문지	SE 척도(SE3)
네 번째 설문지	SE 척도(SE4)
다섯번째 설문지	SE 척도(SE5)
여섯번째 설문지	BDI척도(BDI2), DYAS척도(DYAS2), SE 척도(SE6), DAS척도(DAS1)

註: BDI Beck의 우울척도; DYAS 부부관계적응척도; SE 자아존중감척도; DAS 역기능적태도척도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총 6번, 우울증 척도와 부부관계 적응 척도는 각각 2번,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 척도는 1번 측정하였다.

결 과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남성 집단, 여성 집단, 그리고 전체 집단으로 나누어서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분석에 사용한 변인들(나이, 결혼연한, BDI, DYAS, DAS, SE)을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결혼연한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

표 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BDI1 ^a	BDI2 ^b	DYAS1 ^c	DYAS2 ^d	DAS ^e	SE1 ^f	SE2 ^g	SE3 ^h	SE4 ⁱ	SE5 ^j	SE6 ^k
남성	평균	7.97	6.60	105.55	108.33	142.66	29.21	73.19	74.36	73.24	72.75	74.02
	표준편차	6.43	5.56	16.62	17.71	24.41	4.25	13.21	13.97	14.05	14.52	14.33
여성	평균	8.64	7.87	99.52	101.0	143.13	28.73	71.82	73.04	71.31	71.09	71.33
	표준편차	5.82	6.19	21.17	21.86	27.00	4.35	15.19	15.67	16.92	16.65	17.63
전체	평균	8.24	7.02	103.16	105.42	142.85	29.02	72.64	73.83	72.46	72.08	72.94
	표준편차	6.18	5.82	18.70	19.70	25.37	4.27	13.99	14.62	15.22	15.36	15.72

註: ^a; 1차시기 우울 ^b; 2차시기 우울 ^c; 1차시기 부관계적응도^d; 2차시기부부관계적응도 ^e; 역기능적 태도 ^f; 1차시기 자아존중감 ^g; 2차시기 자아존중감 ^h; 3차시기 자아존중감 ⁱ; 4차시기 자아존중감 ^j; 5차시기 자아존중감 ^k; 6차시기 자아존중감

표 2.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BDI1 ^a											
2. BDI2 ^b	.73***										
3. DYAS1 ^c	-.57***	-.55***									
4. DYAS2 ^d	-.52***	-.65***	.87***								
5. DAS ^e	.31***	.37***	-.16	-.25**							
6. SE1 ^f	-.63***	-.52***	.44***	.43***	-.18						
7. SE2 ^g	-.60***	-.54***	.56***	.55***	-.26**	.80***					
8. SE3 ^h	-.65***	-.57***	.55***	.55***	-.25**	.78***	.91***				
9. SE4 ⁱ	-.50***	-.51***	.46***	.52***	-.27**	.76***	.86***	.87***			
10. SE5 ^j	-.53***	-.59***	.49***	.55***	-.25**	.74***	.85***	.87***	.89***		
11. SE6 ^k	-.55***	-.62***	.53***	.59***	-.38***	.76***	.84***	.85***	.87***	.84***	

註: ^a 1차시기 우울; ^b 2차시기 우울; ^c 1차시기 부부관계적응도; ^d 2차시기 부부관계적응도; ^e 역기능적 태도; ^f 1차시기 자존감; ^g 2차시기 자존감; ^h 3차시기 자존감; ⁱ 4차시기 자존감; ^j 5차시기 자존감; ^k 6차시기 자존감

* p<.05, ** p<.01, *** p<.001

견되었다($t=3.49, p=.001$).

부부관계 적응도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첫날 측정된 BDI1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부부관계 적응도(DYAS1)와 자아존중감(SE1)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 개념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2주후에도 유사하게 반복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BDI2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그때의 자아존중감(SE6), 부부관계 적응도(DYAS2),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부부관

표 3.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결과	R ²	ΔR ²	F
남성	부부관계적응도	ns		
	자아존중감	ns		
	부부관계적응도 × 자아존중감	.48	.48	60.07***
2차 시기 우울	부부관계적응도	ns		
	자아존중감	ns		
	부부관계적응도 × 자아존중감	.41	.41	45.58***
여성	부부관계적응도	ns		
	자아존중감	ns		
	부부관계적응도 × 자아존중감	.44	.44	34.06***
2차 시기 우울	부부관계적응도	ns		
	자아존중감	ns		
	부부관계적응도 × 자아존중감	.51	.51	44.17***

* p<.05, ** p<.01, *** p<.001

계 적응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호작용만이 동시에 측정된 1차 시기의 우울과 2차 시기의 우울을 각각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다. 즉, 횡단적으로 우울과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부부관계 적응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부관계 적응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들의 부부관계 적응 척도를 요인 분석 한 결과(Ro & Kwon, in this volume), 의견일치, 관계만족, 응집력,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네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164명의 남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대우도 방식(Maximum Likelihood)과 varimax 회전을 실시한 결과, 역시 네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요인1은 관계에 대한 만족 요인에 해당하며 요인4는 응집력에 해당한다. 요인2와 3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부분 Spanier의 부부간 의견일치라는 단일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2의 문항들은 '경제적 문제'(문항1), '생활철학'(문항8), '자신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대하는 방식'(문항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목표'(문항10),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문항12), '가사돌보기'(문항13)와 같은 일들에 대한 의견일치의 정도를 묻는 것이며, 요인3에 포함된 문항들은 '오락'(문항2), '애정표현'(문항4), '친구문제'(문항5), '성관계'(문항6), '여가 시간의 취미나 활동'(문항14)에 대한 부부간 의견일치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문항들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인2의 문항들은 도구적 활동에 대한 의견일치의 문항들인 반면, 요인3의 문항들은 유희적 활동에 대한 의견일치 문항들임을 알 수 있다. 즉, 결혼 생활에서의 의견일치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도구적 활동들에 대한 의견일치와 유희적 활동들에 대한 의견일치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표 4. 남성집단 부부관계 적응 척도의 요인분석표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문항01	.13752	.51398*	.31085	.07752
문항02	.07632	.13038	.71284*	.16005
문항03	.21810	.38098*	.17933	.02504
문항04	.24844	.36933	.60309*	.17698
문항05	.26568	.27883	.53851*	.16714
문항06	.34397	.38774	.54471*	.17438
문항07	.31352	.43705*	.35341	.10832
문항08	.32239	.44721*	.33143	.17666
문항09	.35406	.47262*	.11796	.21924
문항10	.19552	.50241*	.13609	.27960
문항11	.17563	.51015*	.23561	-.03478
문항12	.28610	.76967*	.10190	.17582
문항13	.04181	.35350*	.32913	.15304
문항14	.12687	.25107	.73252*	.18480
문항15	.24395	.74779*	.15894	.16707
문항16	.67803*	.37036	.02507	.13839
문항17	.57166*	.45231	.15048	-.01589
문항18	.55405*	.26947	.30705	.14444
문항19	.55408*	.31763	.37223	.17205
문항20	.61429*	.25996	.17258	.18082
문항21	.61687*	.11899	.41383	.23316
문항22	.58582*	.22523	.47975	.16101
문항23	.25863	-.06668	.15408	.46273*
문항24	.15671	.05512	.43116*	.40196
문항25	.24666	.10539	.20699	.79945*
문항26	.39719	.18375	.20589	.60159*
문항27	-.01248	.14755	.23018	.87924*
문항28	.05496	.32557	.13639	.69127*
문항29	.41565*	.28891	.03667	.12808
문항30	.30601*	.06202	.11681	.24004
문항31	.55892*	.25603	.22120	.37943
문항32	.39960	.19785	-.09106	.43087*
고유치	11.40126	2.09829	1.40330	1.14596
설명량	35.6	6.6	4.4	3.6
누적	35.6	42.2	46.6	50.2

이와 같은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남녀에 따라 각각의 부부관계 적응 척도의 요인들이 자아존중감과 어떻게 관련을 맺으며 우울감을 설명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시기의 우울 점수(BDI1)와 2차 시기의 우울 점수(BDI2)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부부관계의 4가지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4가지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총 9가지의 독립변수를 넣어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결과는 표 5에 각각 나타나 있다.

표 5.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II (부부관계 적응척도의 하위요인을 사용)

종속변인		결과	R ²	ΔR ²	F
남 성	1차 시기 우울	1. 자아존중감 × 유희적 활동	.47	.47	57.83***
		2. 자아존중감	.53	.06	35.60***
		3. 유희적 활동	.59	.06	29.76***
	2차 시기 우울	1. 자아존중감 × 유희적 활동	.50	.50	65.88***
여 성	1차 시기 우울	1. 자아존중감 × 의견일치	.47	.47	37.98***
	2차 시기 우울	1. 의견일치	.57	.57	58.17***

* p<.05, ** p<.01, *** p<.001

표 6. 2차시기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결과 I (1차 시기의 변수들을 사용)

종속변인	결과	R ²	ΔR ²	F
남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49	.49	61.49***
여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61	.61	67.83***
	2. 의견일치	.71	.10	52.62***

* p<.05, ** p<.01, *** p<.001

남성 집단에게서는 자아존중감과 유희적 활동의 상호작용이 1차시기와 2차시기의 우울을 예언하는데 중요하며, 여성 집단에게는 자아존중감과 의견일치의 상호작용, 혹은 의견일치 단독으로 우울을 가장 잘 예언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결혼 생활과 자아존중감이 그때 그때의 우울한 기분을 잘 예언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시기의 변수들(1차 시기의 우울 정도, 자아존중감, 부부관계 적응도의 하위척도, 부부관계 적응도의 하위척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1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측정되어진 2차 시기의 우울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앞서 중요했던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 적응도 하위척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1차 시기의 우울 정도만이 2차 시기의 우울을 가장 잘 예언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울감과 상관이 높은 두 변수인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이 2주 후의 우울을 효율적으로 예

언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집단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과 부부관계 적응도의 하위 요인들이 모두 2차시기의 우울을 설명해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그때그때의 우울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남편과의 의견의 일치라는 요소는 우울감의 정도를 따라가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을 예측해주는 안정적인고도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자아존중감 변동성 및 부부관계 적응척도 하위 요인의 우울 예측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1차 시기의 우울(BDI1)을 통제하고서라도 2차 시기의 우울(BDI2)을 잘 예언해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우선, 여섯 번에 걸쳐 완성된 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문항 점수들을 T점수화 하였다. 이는 첫

표 7. 2차 시기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II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을 사용)

종속변인	결과	R ²	ΔR ²	F
남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49	.49	61.49***
	2. 자아존중감의 변동성	.53	.04	35.71***
여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61	.61	67.83***
	2. 의견일치	.71	.10	52.62***

* p<.05, ** p<.01, *** p<.001

번째 자아존중감 설문지가 4점 척도로 제작된 반면 다른 것들은 10점 척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각의 문항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문항별로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10문항에 대한 표준편차의 절대치를 합한 점수를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 변화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자아존중감 변동성의 평균은 남성 집단이 51.74(표준편차 16.02)였으며, 여성 집단이 51.31(표준편차 22.21)로서 그 차이는 t검증의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우울 정도(BDI2)를 종속변인으로 삼고, 1차 시기의 우울 정도(BDI1), 1차 시기의 부부관계 적응도에 대한 네가지 하위 척도, 자아존중감의 변동성, 그리고 부부관계 적응도의 네가지 하위 척도와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의 상호작용이라는 총 10가지의 독립 변인을 이용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남성들에게는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중요한 요소였으나 여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며, 여자들 집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남편과의 관계 중에서 의견일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아존중감 변동성과 부부관계 적응척도 하위요인 및 역기능적 태도의 우울 예측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역기능적 태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우울을 예측해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성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2차 시기의 우울 정도(BDI2)를 넣었으며, 독립변수로는 1차 시기의 우울 정도(BDI1), 1차 시기의 부부관계 적응척도에 대한 네가

표 8. 2차 시기 우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III (역기능적 태도를 포함)

종속변인	결과	R ²	ΔR ²	F
남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49	.49	61.50***
	2. 자아존중감 변동성 × 역기능적 태도	.55	.06	39.59***
여성들의 2차 시기 우울	1. 1차 시기 우울	.61	.61	66.25***
	2. 의견일치	.72	.11	51.91***
	3. 역기능적 태도	.75	.03	39.50***
	4. 자아존중감 변동성 × 응집력	.78	.03	34.69***

* p<.05, ** p<.01, *** p<.001

지 하위 척도, 자아존중감의 변동성, 역기능적 태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부부관계 적응척도의 4가지 하위 척도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역기능적 태도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총 12가지의 변수를 넣었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에 역기능적 태도가 하나의 독립변수로 포함된 경우, 이것이 단독으로 우울을 예언해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상호작용 하여서 우울을 설명해 주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역기능적 태도가 단독으로 우울을 예언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은 또다른 결혼 생활의 한 측면인 응집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울을 설명하였다. 즉,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의 측면들이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 내의 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은 이러한 부부 관계의 측면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만 중요하였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부부 관계의 측면들보다는 개인 내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역기능적 태도의 관계가 우울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기혼 남녀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심리 사회적 변수는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 혹은 불만족감이다. 이미 많은 외국의 선행 연구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결혼한 사람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결혼 생활 내의 변수들, 특히 부부 관계의 측면들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봄과 동시에 그러한 변수들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특히, 결혼 생활과 우울의 밀접한 관련성 내

에서 그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성차이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패턴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서 부부관계의 적응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만이 가장 잘 우울을 예언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부부관계 적응척도를 요인분석하여 구체적인 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그 세부 내용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들의 경우, 유희적 활동(오락, 성관계, 친구문제 등)에 대한 의견의 일치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했던데 비해, 아내들에게는 의견일치라는 단일 요인이 독립적으로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남성이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일들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을수록,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배우자와 뜻이 맞지 않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절대수준은 부부관계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시적(concurrent) 우울감을 설명하는데는 유의미하였으나, 2주후의 우울을 설명하는데는 설명력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주후의 우울을 설명하는 데는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유의미하였으며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그날 그날 경험한 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쉽게 변화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에 취약하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들과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의 변화 정도보다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이 훨씬 더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자아존중감이 쉽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해 보고, 역기능적 태도가 얼마나 우울을 잘 예언해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역시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혼남녀

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역기능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변동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였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역기능적 태도는 단독으로 우울을 잘 예언해 주었으나 이것이 남편과 의견일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가 만큼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으며, 자아존중감의 변동성도 역기능적 태도와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부부간 응집력(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의견교환을 하는가에 대한 정도)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즉,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의 질이 우울의 모든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 집단에서는 결혼 생활 자체보다는 오히려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우울을 잘 예언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보다는 외부인들과의 관계, 혹은 이와 관련하는 여러 가지 외적 스트레스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좌우될 때 더더욱 우울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결혼 생활, 특히 남편과의 의견일치가 우울을 예언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아내들이 경제적 문제나 생활철학, 애정표현, 혹은 상대방의 부모를 대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남편과 의견의 일치를 이룰수록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남편의 지지가 촉진되고, 이러한 남편의 지지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므로 곧 우울감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구성한 피험자들에게서 결혼 연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남녀의 서로 다른 결과 산출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결혼 연한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부부관계의 요인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초기에는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 혹은 애정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다가도 결혼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일들에 대해 배우자와 뜻이 통하

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동일한 연령층에서의 성별의 차이와 동시에 연령층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사례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인 집단에게 열흘 이상에 걸쳐 2-3일에 한번 꼴로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회수된 자료가 만족할 만한 수가 못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지가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험자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고 다소 기계적으로 답하여서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고서라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소들은 그 성격상 외국의 부부들과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주는 부부관계의 요인들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부부들의 그러한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본 연구가 없었으며, 더구나 성별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도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본다. 둘째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아닌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우울한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부부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결혼 생활 지속 연수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화를 밝혀보는 연구들이 후속 된다면, 부부의 불화와 그에 따른 우울증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기본 단위의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민식, 김종술 (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

- 표 논문집, 291-299.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0, 98-11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nett, P. A., & Gotlib, I. H. (1988).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97-126.
- Beach, S. R. H., & O'Leary, K.D. (1986). The treatment of depression occurring in the context of marital discord. *Behavior Therapy*, 17, 43-49.
- Beach, S. R. H., Jouriles, E., & O'Leary, K. D. (1985). Extramarital sex: Impact on depression and commitment in coupl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1, 99-108.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own, G. W., Bifulco, A., & Andrews, B.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4: Effect on course and recover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44-249.
- Butler, A. C., Hokanson, J. E., & Flynn, H. A.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lability and low trait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66-177.
- Culp, L. N., & Beach, S. R. H. (Nov., 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Dobson, K.S., & Breiter, H. J. (1983). Cognitive assessment of depres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ree meas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07-109.
- Josephs, R.A., Markus, H. R., & T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022.
- Kwon, S. 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Merikangas, K. R. (1984). Divorce and assortative mating among depressed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74-76.
- O'Leary, K. D., & Beach, S. R. H. (1990). Marital therapy: A viable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marital discor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83-186.
- O'Leary, K. D., Christian, J. L., & Mendell, N. R. (1994).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3-41.
- Rado, S. (1928). The problem of melanchol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 420-438.
- Ro, E. Y., & Kwon, J. H. (1997). The role of self-esteem and marital relationship on women's depression 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 Roberts, J. E., & Monroe, S. M. (1992). Vulnerable

-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Prospective findings comparing three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04-812.
- Robins, C. J., & Block, P. (1989).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viewed from a diathesis-stress perspective: Evaluations of the models of Beck and of 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297-31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nsaville, B. J., Weissman, M. M., Prusoff, B. A., & Herceg-Baron, R. L. (1979). Marital disputes and treatment outcome in depressed women. *Comprehensive Psychiatry*, 20, 483-490.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Weissman, M. M. (1987). Advances in psychiatric epidemiology: Rates and risks in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 445-451.

The Role of Self-Esteem and Marital Relationship on Women's Depression II

Ro, Eun Yoe Kwon, Jung Hye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lso, self-esteem lability was considered as a vulnerability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atolog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nd 112 cases were put into analyses. As a result, the interaction term of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as important in predicting both men and women's depressive symptomatology. However, different aspects of marital satisfaction was important depending on gender. For women, the interaction of dyadic consensus and self-esteem was important in predicting depression, while dyadic consensus concerning enjoyment of life was important in interaction with self-esteem on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atology for men. On the other hand, these interactions did not predict the depressive symptomatology 2 weeks later. Stable self-esteem variable was especially not significant. Therefore, the concept of labile self-esteem was put into account,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was predicted. As a result, for men, self-esteem labi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dysfunctional attitude was important in predicting time2 depression. However, for women, dyadic consensu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ime2 depressive symptomatology even after controlling the time1 BDI scores. Dysfunctional attitude alone was the second important variable, and finally, self-esteem lability was important only by interacting with dyadic cohesion in predicting depression.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 in that when men and women are dissatisfied in their marriage, the dissatisfaction may have different roots, so marital therapy should consider these differences. Also, since the lability of self-esteem was more important in predicting depression for men,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stability of self-esteem on depression may exist and these aspec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process of marital therapy.